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총무원장 첫 참석

3월 18일, 직지사서 회향식
사미 23명 · 사미니 17명 수계
소년출가자 수석 합격 '눈길'
"출가는 진리의 길 따르는 서원"



조계종 제70기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에서 40명이 수행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김천 직지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조계종 제70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이 3월 18일 제8교구본사 직지사 만덕전에서 회향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회향식에 참석해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

회향식에서는 남행자 23명, 여행자 17명 등 40명이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했다. 특히 소년출가자가 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을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지난 3월 5일 남행자 27명, 여행자 18명 등 총 45명이 입교했으며 서류 및 갈마 심사를 거쳐 44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이들은 사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입교한 행자들로, 청소년출가·단기출가 및 은퇴출가 특별법에 따른 대상자도 포함됐다.

교육 기간 동안 행자들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의 특별법문을 비롯해 기본선원장 대전 스님의 '선지식과의 만남' 특강, 전계사 수진 스님의 법문 등 다양한 강의와 습의를 통해 수행자로서의 기본을 익혔다.

수계식은 전계사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 서봉 스님, 교수아사리 경암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회향식은 교육국장 지현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어 교육평가 보고와 죽비반환 의식이 이어지며 수행 공동체의 전통과 질서를 재확인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끊임없는 정진과 올바른 수행 자세로 불법을 널리 펴 나가길 바란다"며 "불꽃 속에 연꽃을 피우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욕망의 불꽃이 아무리 거세다 해도 여러분이 수지한 가사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갑옷과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장 유정 스님은 우빈 사미와 지민 사미니에게 대표로 교육필증을 수여하며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모범행자상과 제5급 승가고시 수석 합격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모범행자상은 우빈 사미와 혜범 사미니가, 수석 합격자상은 태열 사미와 승련 사미니가 각각 수상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출범 이후 총무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회향식에 참석해 출가 수행자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우 스님은 회향사에서 "청정계율을 받아 지닌 여러분은 이제 출가사문으로서 참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다"며 "계율은 삶의 근본으로, 청정한 계행은 선정으로 이어지고 지혜로 열매 맺는다. 계·정·혜 삼학을 고루 닦아 불법의 정맥을 굳건히 이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출가자의 삶은 진리의 길을 따르는 대장부의 서원"이라며 "지혜로운 수행으로 번뇌와 망상을 다스리고, 모든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품어 안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상 무상·고·무아의 진리를 관하며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자비로운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계자들은 태열 사미가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언제나 삼업을 다스려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여법하여 만중생의 모범이 되고 그 파장으로 우리가 사는 법계가 청정 불국토가 되게 하겠다"고 서원했다.

'AI 시대' 국제선명상대회, 4월 3일 개막

봉은사 · 봉은문화회관 일원
AI 활용 '마음처방전' 선보여
10월까지 전국 9개 지역서

다채로운 체험과 깊이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선명상의 향연'이 올해도 이어진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는 '2026 국제선명상대회(Seon Meditation Summit)'가 오는 4월 3일 봉은문화회관과 봉은사에서 개막을 앞두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이번 대회는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인지·정서 환경을 조명하고,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서 선명상의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 이어 선명상 포럼에서는 AI 시대가 가져올 사회 변화와 정신건강 이슈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명상을 기반으로 한 치유와 회복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해 명상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화두 카드, 차명상, 걷기명상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마음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명상법을 제안하는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간단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진단받고, 맞춤형 명상법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마음 돌봄 방식을 배울 수 있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돼 5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회는 11월 12일 국제컨퍼런스와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 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2026 봉은사 선명상축제'는 4월 4일부터 5일까지 봉은사와 봉은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과 세션, 강연이 마련돼 있으며, 참가 신청은 세션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조계종은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이 특정 계층이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2026 국제선명상대회 홈페이지(https://m.site.naver.com/23bB6)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seonmeditationsummit.kr)과 인스타그램(@seon_meditation_summit)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0-8441-2371

김내영 기자

진각종, 스승과정교육·진각대학원 수료식

3월 12일 전승원 대강당서
제17기 교학과정 입학식도



진각종 교육원(원장 정법 정사)은 3월 12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스승과정교육과 진각대학원 수료식 및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겸 진각대학원장 정법 정사, 총무부장 원상 정사, 기획실장 청효 정사 등 통리원·교육원 스승들과 교육과정 수료생, 입학생 등이 동참했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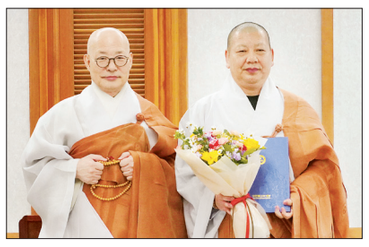
이날 제17기 아사리과정에서는 8명이, 제21기 심학과정에서는 10명의 스승이 수료했다. 제31회 진각대학원에서도 7명이 수료했으며, 성적우수자인 실상학 전수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이어 새롭게 시작된 제17기 교학과정에는 10명의 스승이 입학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인재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며 "각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선암사 주지에 연규 스님 임명

진우 스님 3월 17일 임명장



조계종 제20교구본사 선암사 주지에 연규 스님(여수 향일암 주지)이 임명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연규 스님을 선암사 주지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대진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상황에서 선암사 사정에 밝은 화엄사 측에 후임 추천을 요청했고, 스님이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소임을 맡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종 선암사라는 명칭이 엄연히 살아 있는 만큼 교구본사로서 역할을 잘해 주길 바란다"며 "큰 이슈는 일단락됐지만 마무리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연규 스님은 1999년 덕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은해사 기획국장, 대구 팔공산 갓바위 부주지, 향일암 총무국장, 대구 운흥사 주지, 의왕 용화사 주지, 해동용궁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여수 향일암 주지이자 17·18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재심호계원, 3월 24일 은해사 심리 속행

3월 18일 2차 심리 진행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 상소 심리가 오는 3월 24일 속행된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정묵 스님)은 3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69차 심판부를 열어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소청에 대한 2차 심리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피소청인 성로 스님이 출석해 그간의 주장에 대한 확인과 심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청인 덕관 스님은 출석 연기를 신청해 심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재심호계원장 정묵 스님과 위원 진만·성공·법경·승원·원명·정문·도영 스님이 참석했다.

김내영 기자

